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07 [1~4]

(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이들이노니  
[A]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B]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C]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D]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E]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품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축약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문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③ [C]: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품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보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읽기 전 활동

대립적 구조를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보기>입니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하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는 부정적 속성을, 하늘은 긍정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이하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골방’의 커튼을 걷고 골방 밖의 황혼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기>에서 언급했듯 화자가 머무르는 공간인 골방과 황혼이 존재하는 외부 공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 인간의 모습을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황혼에게 부드러운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화자가 뜨거운 입술을 맞추어 보고 싶다고 말하며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황혼이 존재하는 방 바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기>에서 황혼이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여 화자가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화자 또한 만물을 포용하는 등의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중소리 저문 삼립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四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별들과 수녀들, 수인들같이 의지할 곳 없는 나약한 ‘그들’의 심장이 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혼은 이들은 다 수용하는 존재로써, 이들이 떨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화자는 행상대나 인디언들이 황혼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을 자신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혼이 행상대나 인디언을 품안에 안아주는 모습을 통해 황혼의 포용성과 이를 잠시 맡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포용성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자신이 누운 공간인 '오월의 골방'은 '아늑'한 공간으로써, 화자는 황혼이 내일도 커튼을 걷게 만들 것이라며 시냇물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황혼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와 동시에 한번 식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는 황혼의 모습을 통해 황혼이 지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를 확인하지 않고 접근했다면 꽤나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골방 안과 밖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시를 읽어 나간다면 화자가 황혼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자가 황혼처럼 만물을 수용하고 싶어하고 외로운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화자의 모습, 파도 사이로 해로가 일렁일지라도 홀로인 화자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공간인 바다에서 고통받는 화자의 모습과 그 고통을 참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홀로인 화자의 모습은 <보기>에서 언급했듯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과거를 떠나보낸다는 화자의 모습은 바다로 인해 고통받던 옛날의 모습을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슬픔이 설사 바다와 같더라도 하늘을 꿈꾼다고 이야기하는데, <보기>에서 언급했듯 부정적 공간인 '바다'와 긍정적 공간인 '하늘'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하늘을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에서 '하늘'과 '바다'의 의미를 파악한 후 시를 해석한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공간과 부정적인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하늘'을 꿈꾸고 있음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 기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연의 형식적 특성이 마지막 연에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② 추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가)의 경우 '부드러운 손', '뜨거운 입술'과 같이 추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만물을 포용하는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차운 물보라'와 같이 추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부정적인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있을까'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묻고 답하는 형식 모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경우 ‘흰갈매기’와 ‘녹음’, ‘푸른 커튼’과 같이 색채어의 사용이 드러나고 있으나,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색채어의 사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과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공간의 대조적 비교를 통한 작가 의식의 표출이 드러날 뿐, 이를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A] :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 ‘인간’은 ‘외로운’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② [B] :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을 맞추고 싶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황혼에서 황혼이 품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③ [C] :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은 ‘별들, 수녀들, 수인들’과 같이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위로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측은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D] :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게 맡겨달라는 화자의 말은 지구의 반쪽에 존재하는 ‘행상대’, ‘인디언’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⑤ [E] :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오월의 골방’을 ‘아늑도 하’다고 생각하면서 황혼이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화자가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황혼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3.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부정적 상황에 ‘홀로’ 놓여있습니다. 이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③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목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지는 ‘옛날’은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목을 내어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화자는 ‘감상의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은 ‘아득히 띄워보내’고자 합니다. 이는 화자가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구분지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을 꿈꾸’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가)에서 화자는 골방에서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을 연결시킵니다. 이는 화자가 두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공간을 연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별들', '수녀', '수인'과 같이 의지할 가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소외된 존재들을 안쓰럽게 여겼기 때문에 고립된 골방에서 벗어나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를 넘어서서 이와 대비를 이루는 '하늘'을 꿈꾸고자 합니다. 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화자에게 슬픔을 주던 공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공간을 꿈꾸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천인의 깊이'의 바다가 '꿈꾸어야 할 하늘과 대비를 이루는 것은 맞으나, 바다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하늘로 여겨진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원목을 내어맡긴 천인의 깊이' 위에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꿈꾸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